

# 唐 中葉의 四人의 澄觀

慧南(노재성)

불교학과 교수

中國 華嚴宗의 第四祖라고 불리어지는 淸涼 澄觀의 전기는 확실하지 않은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송고승전』은 70여 세를 말하는데 11세기의 契崇은 國師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12세기 이후에 생겨난 『會解記』와 『會玄記』는 배후가 지었다는 『妙覺塔記』를 인용하여 『天下大僧錄』, 『僧統』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12세기경에는 四人의 정관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특히 韓愈가 지은 『送僧澄觀』이라는 詩를 놓고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 이에 小論은 이러한 四澄觀說과 『送僧澄觀』 詩와 그것을 둘러싼 모든 논쟁의 전모를 밝히고 여러 종류의 淸涼 澄觀의 전기가 말하는 그의 生沒年代 및 그의 행적을 살펴 봄으로써 泗州地方에 詩僧澄觀이 한 사람 實存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唐大和尚東征傳』에 나오는 澄觀은 확실히 同名異人임을 입증하고 『送僧澄觀』을 둘러싼 논쟁이 곧 유교와 불교의 교섭의 한 단면임을 지적하였다.

# 唐 中葉의 四人의 澄觀

慧南(노재성)

불교학과 교수

- |                      |                                  |
|----------------------|----------------------------------|
| 1. 머리말               | 4. 한유의 「送僧澄觀」에 대한 송대 이후의 논쟁에 대하여 |
| 2 『韻語陽秋』의 四人의 澄觀說    | 5. 淸涼澄觀의 生沒年代와 泗州澄觀              |
| 3 『昌黎集』의 「送僧澄觀」에 대하여 | 6. 맺는 말                          |

## 1. 머리말

中國의 唐代는 中國佛敎의 黃金時代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高僧이 배출되어 중국불교를 創出하여 宗教·思想界는 말할 것도 없고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全般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自他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舊唐書』 方伎傳은 玄奘, 神秀, 一行傳을 기록할 뿐이고 『新唐書』는 그것마저도 削除할 정도로 불교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다루고 있다. 史家의 그것과는 對照的으로 唐代의 詩와 文章을 다룬 『全唐詩』, 『全唐文』에는 僧侶詩人이 많이 등장하고 또 儒者로서 僧侶와 寺院에 관하여 읊은 작품이 많다. 예를 들면 『全唐詩』 卷 806에 수록된 「寒山詩」를 비롯하여 拾得, 豐干(卷 807), 慧宣(卷 808), 皎然(卷 815~821), 貫休(卷 826~837) 등 수없이 많은 승려시인의 작품이 등장하며 唐의 中葉에 활동한 權德輿, 柳宗元, 劉禹錫, 白居易 등의 詩文에는 僧侶와 道士의 이름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는 頑固한 排佛論者인 韓愈도 例外는 아니다.

韓愈(768~824)의 詩文에는 僧侶와 道士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元和 14年(819)에 鳳翔法門寺의 佛舍利를 궁중에 맞이하여 三日間이나 공양을 올림에 당하여 그 不當함을 논하는 「論佛骨表」 事件으로 潮州에 流配된 후로는 太顛禪師를 섬겼으며 袁州刺史로 轉任할 때는 法服을 보내며 이별을 아쉬워하였다. 이것이 뒷날 말썽이 되자 韓愈는 『與孟簡書』에서 太顛이 총명하고 道理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동무를 하였을 뿐이고 佛法에

歸依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排佛論者인 韓愈가 많은 僧侶와 交際하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것은 自己矛盾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하여 潘德輿(1785~1839)는 「韓愈가 미워하는 것은 부처이고 승려가 아니다 ... 승려는 애처롭게 여겨야 한다.」<sup>2)</sup>라고 말하고 있으며 『唐宋詩醇』은 韓愈의 뜻은 僧侶를 還俗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한다.<sup>3)</sup>

사실 推敲의 故事로 유명한 賈島는 본래는 僧侶였지만 韓愈의 勸誘에 의하여 還俗하였다고 전하여 진다. 宋의 陳善의 『捫蝨新話』는 「送靈師」의 「바야흐로 이 사람을 儒家의 道로 거두어 들여 그 머리에 갓을 씌우려 한다.」라는 句節과 「送僧澄觀」의 「내가 儒家의 道로 거두어 들여 갓과 망건을 씌우고자 한다.」라고 한 것은 還俗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내보인 것<sup>4)</sup>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이 가운데 靈師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 1) 韓愈의 詩文에는 僧侶와 道士, 혹은 寺院과 宮觀의 이름이 많이 보인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의 하나가 太顛禪師와의 관계이다. 河寄澎 「唐代古文家與佛教之關係」는 韓愈가 僧侶들과 往來가 잦았던 것은 그가 겉으로는 儒者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佛者였음을 證明할 수 있을까? 爭論을 불러일으키는 초점은 韓愈가 太顛에게 보낸 三書이다. 이 三書의 眞僞問題를 고찰하면 宋나라 以來 爭論이 紛紛하였다. 蘇軾의 「雜說」(朱子の 「韓文考異」에 인용한 것이 보이지만 지금 전하는 『東坡文集』에는 보이지 않음), 陸遊의 「老學庵筆記」卷6, 黃震의 「黃氏日抄」卷59, 「楊慎升」의 「庵外集」卷49, 「丹鉛總錄」卷10의 太顛條 등은 모두 僞作이라고 하고 歐陽修의 「集古錄」의 跋尾, 朱子の 「韓文考異」는 退之의 저작이라고 본다. 그러나 歐陽修도 이것을 인하여 韓愈가 불교를 믿었다고 보지는 않고 朱子도 말하길 「舊本은 없애지고 僧侶들이 기록한 것은 참되지 못하여 脫誤가 많다」고 말하여 중간에 僧侶들이 찬탈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第一屆國際唐代學術會議論文集』, 270쪽)라고 말하고 있지만 宋의 元符中(1098~1100)에 編集된 「祖庭事苑」卷4는 韓愈가 「論佛骨表」 사건으로 潮州에 流配되어 太顛과 交流하고 太顛의 弟子인 三平을 因하여 佛教의인 깨달음을 얻고 佛教에 歸依하였지만 뒷날 佛教信者의 자취를 지우고 儒學者로서의 명예를 지키려 하였다고 當時의 復數의 禪錄 및 傳聞을 종합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 宋의 悟明의 「聯燈會要」卷20은 太顛의 法嗣 四人 가운데 韓愈를 넣고 있다(卍續藏 136~213 左下). 그 밖에 『佛祖統紀』卷41 등 宋代 以後의 불교의 史書의 대부분은 太顛과 韓愈의 師弟關係를 기록하고 있다.
- 2) 潘德輿의 「養一齋詩話」 권8은 「…… 夫退之心 所憎者 佛也 非僧也 佛立教者也 故可憎僧 或無生理而爲之 或無知識而爲之 可憫而不可憎也 觀退之 送惠師云 惠師浮屠者 乃是不羈人 言其雖爲浮屠 而人卽不爲彼教所束 故用乃字見意 送澄觀云 皆言澄觀雖僧徒 公才吏用當今無 是欲其歸正 而用其才能不以僧徒異視 故用雖字見意 送靈師云 飲酒盡百錢 嘲諧思逾鮮 飲酒嘲諧皆 戒律所禁 靈師能爾 轉用以譽之 亦愛僧闢佛之意也 退之 曷嘗光大其教哉 ……」라고 말하고 있다.
- 3) 『唐宋詩醇』卷八은 「昌黎詩集」의 「送惠師」와 「送靈師」를 收錄하고 「前篇 但敘其放浪山水 後篇卽干謁飲博 無所不有 其所以稱浮屠者 皆彼法之所戒 良以不拘彼法 乃是近於吾道 且欲人其人而已 并未暇明先王之道以道之也」라고 기술하고 있다.
- 4) 『捫蝨新話』卷7은 「退之 送惠師,靈師,文暢,澄觀等詩 語皆排斥 獨於靈師 似有褒措 而意實微顯 如圍棋,六博,醉花月,羅娼嬋之句 此豈道人所宜爲者 其卒章云 方將斂之道 且欲冠其顛 於澄觀詩亦云 我欲收斂 加冠巾 此便是勸令還俗也」라고 말하고 있다.

澄觀이란 華嚴疏主인 澄觀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同名異人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아 宋代以後 많은 논쟁이 일고 있다.

이에 拙者は 이 問題, 즉 複數의 澄觀이 實存하였을 可能性에 대하여 일찍이 『送僧澄觀』について』라는 제목으로 拙見을 披瀝한 바가 있다.<sup>5)</sup> 이후 鎌田茂雄 博士의 『二人の澄觀 -泗州澄觀と清涼澄觀-』<sup>6)</sup>이라는 高見이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의문이 다 解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으로 이번에는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면서 葛立方의 『韻語陽秋』<sup>7)</sup>에 보이는 四人의 澄觀에 대하여 糾明하여 보고자 한다.

## 2. 『韻語陽秋』의 四人의 澄觀說

우선 『韻語陽秋』의 전문을 알기 쉽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唐나라 中葉에 불교계에 四人의 澄觀이 있었다.

1) 寺塔을 세워 僧伽寺에 거처한 사람은 洛中의 장관이다. 그럼으로 退之가 元和 5년(810)에 洛陽승이 되었을 때 그에게 詩를 주어 이르길 「불로 태우고 물로 굴러 땅을 쓸어 쓸쓸한데 (澄觀이 세운 塔은) 우뚝 솟아 높이가 三百 尺, 洛陽의 고독한 가을 외로움에 지쳤는데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啄木鳥라는 새가 나무를 쪼는 소리가 의심하였더니 승려가 찾아왔다. 불러서 만나 보니 앞이마가 솟아나고 양쪽 볼이 불거진 (걸출한 僧侶였다)라고 말한 사람이다.

2) 無名大師에게 參禪을 배우고 華嚴疏主가 되어 譯經에 潤文이 된 사람은 會稽의 澄觀이다. 그럼으로 裴休가 그 塔銘을 지어 말하길 元和 5년에 僧統印을 받아 九宗聖世를 지나면서 七帝門師를 歷任하였으며 世俗의 수명은 102歲인 사람이다.

3) 『傳燈錄』에 鎮國大師 澄觀이 皇太子(뒷날의 順宗)가 心要를 질문한 데 대한 대답이 있는데 마음과 마음이 부처를 지음이라 한마음이라도 부처의 마음 아닌 것이 없으며 곳곳마다 道를 이름이라 한 티끌이라도 佛國 아닌 것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짓는 바가 흰 출하니 어찌 앞의 두 사람의 澄觀이 金을 갈아서 福을 심고자 하고 모래를 헤아려 바다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비유하겠는가?

5) 盧在性 「韓愈의「送僧澄觀」について」(『大正大學大學院研究論集』第14號 1990年 2月).

6) 鎌田茂雄 「二人の澄觀-泗州澄觀と清涼澄觀-」(『印佛研究』第41卷 第1號 1992年 12月).

7) 宋徽宗의 宣和癸卯(1123)에 편집하였다고 전하여 지는 阮閱의 『詩話總龜』 권 45에는 葛勝仲(1077~1144)의 『丹陽集』의 四澄觀說을 인용하고 있지만 現存의 『丹陽集』에는 보이지 않고 그의 아들인 葛立方의 『韻語陽秋』卷 12에 『詩話總龜』와 同一한 내용이 실려 있다.

4) 또 曹溪에서 떨어져 나온 第二世인 五臺山 華嚴 澄觀大師가 있다. 이미 「華嚴」이란 두 글자가 있고 또 無名禪師의 法嗣라는 말이 있으니 會稽의 澄觀인 듯하지만 그러나 이어서 말하기를 機緣語句를 기록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니 또한 (會稽의 澄觀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1, 2, 3, 4 등 숫자와 문장 가운데 ( )안에 들어 있는 말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집필자가 추가한 것임).

이하 葛立方이 말하는 四人의 澄觀에 대하여 차례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 (1) 洛中の 澄觀

이 사람이 淸涼 澄觀과 同一人인지 同名異人인지에 대하여 다음 節에서 각각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 (2) 會稽의 澄觀

일반적으로 澄觀을 말한다면 이 사람을 가리킨다. 그의 傳記에 대하여 『宋高僧傳』 권 제五是 姓은 夏侯氏, 越州 山陰의 사람(『妙覺塔記』 등은 「會稽人」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地名으로 말하면 越州 會稽郡 山陰縣의 사람으로 지금의 紹興縣에 해당함). 十一歲에 寶林寺의 洪霈를 의지하여 출가하여 14歲에 得度하고 乾元中(758~759)에 潤州의 棲霞寺의 醴律師에게 相部律을 배우고 越州의 曇一의 南山律(宗)에 소속되었으며 金陵의 玄璧으로부터 三論을 전하여 받았다. 大曆中(766~779)에 瓦官寺에서 起信 涅槃을 전하여 받고 또 淮南의 法藏으로부터 海東의 『起信論疏』의 뜻을 전하여 받고 天竺寺의 法誥으로부터 「華嚴」을 익혔다. 七年(772)에 剡溪에 가서 成都의 慧量으로부터 「三論」을 復習하였다. 十年(775)에 蘇州에 가서 湛然에게서 天台의 止觀, 法華, 維摩 등의 經疏를 배웠다. 그의 博學함은 蔡邕의 後身이라고 말하여 졌다. 또 牛頭의 慧忠 徑山の 道欽(法欽) 洛陽의 無名으로부터 南宗禪을 이어 받고 또 慧雲을 뵈고 北宗의 玄理를 了達하였다. 드디어 經傳, 子史, 小學, 蒼雅, 天竺의 悉曇, 諸部の 異軌, 四圍 五明, 秘呪, 儀軌를 배우고 篇頌筆語書蹤에 이르기까지 모두 널리 배웠다.

大曆 11年(776)에 五臺山으로 들어가서 興元 元年(784)으로부터 貞元 三年(787)에 걸쳐서 「華嚴經疏」를 저작하고 四年(788)에 새로 지은 疏를 講義하고 七年(791)에는 河東節度使 李自良의 초청을 받아 崇福寺에서 講義하였다. 德宗은 中使 李輔光을 보내어 서울로 초청하였지만 사양하였다. 다음해 五月 內中使 郭仙鳴을 보내어 내전에 모셔와 공경을 다 하고 翻譯場에서 뜻을 判定<sup>8)</sup>케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 번역된 40권 「華嚴經」에 대하여 注

8) 判定 - 文章과 文字를 訂正하여 定本으로 만드는 것을 말함이니 唐 貞元 11年(795) 11월에 梵本이 德宗에게 進上되어 同 12年(796)부터 번역하기 시작하여 同 14年(798) 2月 24日에 翻譯을 마쳤다는 40卷 本 「華嚴經」은 澄觀이 最終적으로 潤文證義하였음을 뜻함.

釋書 즉 『華嚴經疏』를 짓게 하였다. 또 順宗이 太子였을 때 그의 命에 의거하여 『了義』 1卷, 『心要』 1권, 『肉食得罪因緣』을 說하였으며 朝臣으로서 相國 齊杭, 太常 韋渠牟와 가장 親하였고 옛 宰相이었던 武元衡, 鄭絪, 李吉甫, 權德輿, 李逢吉, 中書舍人 錢徽, 兵部侍郎 歸登, 襄陽節度使 嚴綬, 越州觀察使 孟簡, 洪州韋丹이 모두 澄觀의 德을 欽慕하였으며 혹은 戒訓을 따랐다. 元和의 해(806~20)에 卒하시니 春秋는 70餘<sup>9)</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裴休가 지었다는 『妙覺塔記』는 開成 己未(839)卒, 壽102, 『隆興編年通論』 등은 開成 三年(838)沒, 壽102라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20餘種을 넘는 『澄觀傳』의 대부분은 貞元 15年(799)의 기사에 「鎮國大師」, 「教授和尚」, 「天下大僧錄」, 「清涼國師」 등의 稱號가 있으며, 元和 5年(810)에 「僧統」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10)</sup>

### (3) 『傳燈錄』의 澄觀

葛立方이 「傳燈錄에 鎮國大師인 澄觀이 있다」등이라고 말한 것은 『景德傳燈錄』 第三十의 「五臺山鎮國大師澄觀答皇太子問心要」의 「마음과 마음이 부처를 지음이라 한 마음이라도 부처 마음 아닌 것이 없으며 곳곳이 道를 이룸이라 한 티끌이라도 부처 나라 아닌 것이 없다」고 한 글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禪理를 體得한 禪師로서 (1)의 塔寺의 造營, (2)의 龍大한 『華嚴經疏鈔』를 지어 조그마한 敎理的인 論爭을 일삼는 敎學者와는 根本的으로 다르다라고 葛氏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華嚴經疏鈔』를 보면 수많은 禪錄을 引用하고 있으며 『宋高僧傳』의 澄觀傳을 비롯하여 대개의 澄觀傳은 澄觀의 修學時節에 牛頭의 혜충, 徑山의 法欽(道欽)에게 禪理를 묻고 洛陽의 無名으로부터 南宗禪을 이어받고 慧雲으로부터 北宗의 玄理를 了達하였다고 하며 또 그의 저작으로서 『心要』를 들고 있고, 『隆興編年通論』 卷 20(大日本續藏經 130권 621쪽 하단~622쪽 상단)과 『佛祖綱目』 권 32(大日本續藏經 148권 518쪽 하단~519쪽 상단)에는 「뒷날의 순종이 皇太子였을 때 『心要』를 물었다는 기록도 있고 또 『心要』의 全文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景德傳燈錄』 卷 第三十에 수록한 「五臺山鎮國大師澄觀答皇太子問心要」<sup>11)</sup>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또 이 『心要』에 대한 圭峯宗密(780~841)의 注(『新纂大日本續藏經』 第 58卷 - 426쪽)도 있으며 또 宗密의 『禪門師資承襲圖』에도 「華嚴疏主가 順宗의 물음에 대답하여 말하길 머뭇이 없는 心體는 신령스럽게 알아서 어두움이 없다[靈知不昧]고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길 움직임에 맡겨서 공적하게 안다[任運寂知]하시고, 또 이르시길 쌍으로 공적하게 앎을 비추어 본다[雙照

9) 大正藏 50 - 737 상~하, 참고로 『華嚴經演義鈔會解記』가 인용한 『宋高僧傳』은 「七十四」로 기록하고 있다.

10) 그의 僧統就任의 시기에 대해서는 『釋氏通鑑』 등은 元和 四年 五月의 就任이라고 말하지만 앞에서 말한 『妙覺塔記』, 『韻語陽秋』를 비롯한 大部分의 傳記類는 元和 五年의 僧統을 기록하고 있다.

11) 『大正藏』 51 - 459쪽 中~下.

寂知]라고 하셨다.)(『新纂大日本續藏經』第 63권 - 35쪽上段)라고 인용하였으며 또 禪宗의 저작인 『指月錄』 卷二에도 「答皇太子問心要書」라는 이름으로 전문을 수록하고 淸涼 澄觀의 간단한 傳記까지 첨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新纂大日本續藏經』第 83권 - 424쪽) 『心要』의 저자는 華嚴의 澄觀임에 틀림없다. 또 淸涼澄觀에 대한 「鎮國大師」라는 호칭문제도 新羅의 崔致遠(857~904)이 지은 『唐大薦福寺故寺主麟經大德法藏和尚傳』에도 「淸涼山鎮國沙門澄觀疏玄義」(大正藏 52 - 282上段)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淸涼澄觀을 鎮國沙門이라고 불렀음이 분명하다.

(4) 曹溪別出 第二世 五臺山 華嚴 澄觀大師

이 澄觀은 「華嚴」이라는 두 글자가 있고 「無名禪師의 法嗣」라는 말이 있으므로 會稽의 澄觀인 듯하지만 이어서 「機緣의 語句를 기록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會稽의 澄觀과는 별다른 사람이라고 葛氏는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景德傳燈錄』 卷13의 五臺山 無名禪師의 法嗣 한 사람에 「五臺華嚴澄觀大師」를 기록하고 그 脚註에 「一人, 機緣이 없음으로 語句를 기록하지 않는다」<sup>12)</sup>라고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禪門에 있어서 悟道의 계기를 만드는 禪問答의 有無를 말할 뿐이고 『華嚴經疏鈔』와 같은 龍大한 저작의 有無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sup>13)</sup> 어쩌면 宗密이 자기의 정통을 주장하기 위하여 無名과 淸涼 澄觀을 연결시켰을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sup>14)</sup> 華嚴疏主인 澄觀과 無

12) 大正藏 51 - 301 中.

13) 錢仲聯 『韓昌黎詩繫年集釋』은 「第四澄觀도 또한 별도로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傳燈錄』에서 「機緣語句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禪門 方面으로 말했을 뿐이고 澄觀에게 著述이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14) 鎌田茂雄 「澄觀における禪思想の形成—牛頭禪の相承—」은 「『景德傳燈錄』 卷 13에서는 五臺山 無名の 法嗣로서 澄觀의 이름을 들고 眞觀은 無名으로부터 荷澤禪을 받았다고 하였다. 澄觀이 荷澤禪을 相承하였다고 주장한 사람은 宗密이다」라고指摘하여 澄觀의 禪은 荷澤禪이 아니고 牛頭禪이라고 論述하고 있다(『印佛研究』 九 - 二, 1961年 3月). 그러나 『華嚴經』 卷 13, 問明品の 「부처님 경계의 知」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文殊菩薩의 대답인 「알음알이(識)로써 능히 알 바가 아니고 또한 마음의 境界도 아니다.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모든 衆生에게 열어 보인다.(大正藏 10 - 69 - 上)라는 法語를 해석하는 『華嚴經疏』 卷 15는 知라는 것은 마음의 바탕이니 了別하는 것은 참다운 眞知[眞知]이 아니다. 그럼으로 「알음알이로써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驚起도 또한 眞知가 아니다. 그럼으로 「마음의 경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心體는 생각을 여의어서 곧 생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님으로 「本性淸淨」이라고 말씀하셨다. 중생이 평등하게 所有하고 있지만 미혹에 가리워서 알지 못함으로 부처님이 開示하여 悟入케 하셨다. 體에 즉한 用이기 때문에 知로써 묻고 用에 즉한 體이기 때문에 性淨으로써 答하니 「知」라는 한 글자는 衆妙의 門이다. 만약 능히 몸을 비우고 알면 문득 佛境에 契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演義鈔』 卷 34는 南北宗의 禪을 모두 비판하고 마지막에 水南善知識의 「體에 즉한 用을 知라고 이름하고 用에 즉한 體를 寂이라고

名의 弟子인 澄觀이 別人일 可能性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會稽의 澄觀이 일반에 잘 알려진 『華嚴經疏鈔』 등의 著作을 남긴 淸涼 澄觀이며 그의 『傳燈錄』의 澄觀이란 華嚴疏主 澄觀의 禪師의 모습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의 『曹溪別出 第二世의 五臺山 華嚴 澄觀大師』라는 것도 淸涼 澄觀의 禪의 法脈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韓愈의 詩에 보이는 澄觀이다. 다음에 節을 바꾸어 『送僧澄觀』에 보이는 澄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

### 3. 『昌黎集』의 「送僧澄觀」에 대하여

먼저 韓愈의 文集인

『昌黎集』 卷七 收錄의 「送僧澄觀」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 1.

浮屠 서쪽에서 와서 무엇을 하였느냐?  
시끄럽게 四海(의 사람)이 다투어 달려가네  
樓閣을 짓되 銀河水에 닿을 듯하여  
웅장함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다투어 그칠 줄 모르네

#### 2.

僧伽가 뒤에 淮水와 泗水의 강변에서 태어나  
氣勢가 못 부처에 이르러 더욱 恢奇하도다  
越나라 胡나라 商人들은 罪業을 消滅하려고  
배에 가득 실은 寶物도 아까운 줄 모르네  
맑은 淮水는 波濤가 없어 평평하기 자리[席]와 같고  
欄干 기둥의 丹青은 하늘의 半을 붉게 하였네  
불로 태우고 물로 굴리어 땅을 쓸어 쓸쓸한데  
우뚝 솟아 높이가 三百尺(의 大塔)  
그림자가 못 밑에 잠기면 龍이 놀라 달아나고  
白晝에 구름이 없으면 하늘을 걸터 앉네

말하나니 마치 燈에 즉하였을 때 곧 이것이 빛[光]이고 빛[光]에 즉하였을 때 곧 이것이 燈이니 燈은 體이고 光은 用이 되어 둘이 없으면서 둘인 것과 같다. 「知的 한 글자가 衆妙의 門이다」라고 한 것도 水南의 말이다」라고 말하여 河澤의 異名인 水南의 말로서 會通하고 있어 주목된다.



3

잠깐 묻노니 經營者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道人澄觀의 이름이 籍籍하도다  
 내가 옛적에 軍을 따라 大梁에 갔더니  
 往來하는 屋舍에 가득한 賢人 豪傑들이  
 모두 말하길 澄觀이 비록 僧侶의 무리이긴 하지만  
 公務를 처리하는 才能, 官吏로서의 역할이 當今에 없도다  
 뒷날 徐州로부터 辟書가 이르러 赴任하였더니  
 기록할 수조차 없는 많은 過客이 몰려들어  
 사람마다 말하길 澄觀은 詩人이다  
 一座가 다투어 새로 지은 詩句를 읊었다  
 내가 (그를 儒敎로) 거두어 들여 갖과 망건을 씌우고 싶지만  
 바람을 향하여 길이 만나볼 수 없음을 한탄하였다.

4

洛陽의 따분한 가을날 孤獨에 지쳤는데  
 똑똑 門을 두드림을 啄木鳥의 소리인 줄 의심하였더니  
 찾아온 승려 있어 불러서 대면하였더니  
 이마는 불거지고 양뺨은 높아 貴人의 모습이로다  
 아깝다, 이미 늙어서 미칠 바는 없을 것 같고  
 앉은 채로 神骨을 엿보니 헛되게 눈물만 흐르네  
 臨淮의 太守가 처음으로 赴任하면서  
 멀리 州民을 보내어 書信을 보내어 맞이하니  
 기록한 것을 좋아하고 俊傑을 僮讚하되 바로 만나기는 어려워  
 잘 가라 위하여 생각의 중용함을 이루리라

우선 내용의 대략을 정리하여 본다면 第一段의 四句는 佛法이 傳來된 후로 土木工事의 氾濫과 奢侈를 꾸짖고 第二段의 十句는 僧伽大師의 活躍地인 泗州에 僧伽塔을 높이 쌓은 것을 기술하고 第三段의 十二句는 僧伽塔의 建立者인 澄觀의 公務를 처리하는 才能과 官吏로서의 役割을 듣고 만약 만날 수만 있다면 儒敎로 引導하고 싶은 感情을 表現하고 第四段의 十句는 孤獨한 洛陽時節의 어느 날 찾아온 僧侶가 澄觀이었지만 만나 보니 소문대로 貴人의 風貌는 있었지만 너무 늙어서 儒敎로 돌아올 수도 없을 것 같고 泗州太守의 招請에 나아가는 澄觀을 보내는 心情을 읊은 것이다.

이 詩의 成立時期에 대하여 葛立方은 『韻語陽秋』에서 元和 五年(810)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韓昌黎詩繫年集釋』 卷一의 脚註는 貞元 16년(800)으로 보고 있

는데 이는 대부분의 주석가의 견해와 동일하다. 만약 이 見解가 옳다면 당시 韓愈는 33세의 洛陽승이었고 『華嚴經疏』를 지은 징관은 63세로서 당시에 淸涼國師라는 칭호를 받고 있을 때이다. 그러므로 詩의 가운데 「이미 늙다」라는 표현과 일치한다.

다음 한유의 시에 「僧伽가 뒷날 淮泗의 강변에 태어나다」라고 한 것은 澄觀이 泗州의 開元寺에 僧伽塔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淸의 黃鉞의 『昌黎先生詩增注証訛』는 승가의 略傳을 李崑의 『泗州普光王寺碑』로부터 인용하고 顧嗣立(1669~1722)의 補注는 『紀聞錄』을 인용하여 僧伽塔의 유래를 설하고 있으며 圓珍(814~891)의 『智證大師請來目錄』에는

泗州普光王寺碑文一本 李北海

澄觀和尚獻相公書一本 上二本合卷<sup>15)</sup>

이라고 기록하여 普光王寺의 건립자인 僧伽와 澄觀의 밀접한 관계를 엿보게 하며 송나라 조공무(晁公武)의 『昭德先生郡齋讀書志』의 釋書類는,

華嚴經淸涼疏一百五十卷

이라고 표기한 다음에 「右(筆者注 원문은 세로쓰기임으로 右라고 한 것임)는 唐나라 승려 澄觀이 지은 것으로 澄觀이 淸涼山에 살면서 淸涼國師라고 이름하였으니 곧 韓愈가 詩를 보낸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韓愈의 詩에 나오는 澄觀이 곧 『華嚴經疏』의 저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 견해는 王鳴盛(1722~1797) 등도 이어받고 있지만,<sup>16)</sup> 西曆 11~12세기경에는 이 韓愈의 시에 보이는 징관이 곧 화엄종의 징관인지 동명이인인지에 대하여 심한 논쟁이 일고 있으므로 이하 節을 바꾸어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15) 大正藏 55 - 1107上

16) 王鳴盛의 『蛾術編』 卷 76은 승려인 澄觀을 보내는 詩는 군대를 따라서 大梁과 徐州에 갔을 때를 서술하고 이어서 洛陽의 고독한 가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徐州를 떠나 洛陽에 있을 때 지은 것임이 분명하다. 마지막에 臨淮—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澄觀이 太守의 초청으로 부임할 때 韓愈가 보낸 것이다. 『華嚴經疏』는 唐나라 스님 澄觀이 지은 것이다. 明나라 天啓 七年(1627), 嘉興 三塔寺 板刻의 앞에 紋文이 있어서 澄觀의 行迹을 기록하기를 「開元 26年 戊寅에 태어나다」라고 하니 韓愈가 시를 지은 貞元 16年 庚辰(800)까지를 헤아려보니 이미 63歲나 된다. 그러므로 「이미 늙었다」라고 말하였다. 또 말하길 「澄觀이 文宗의 開成 3년에 죽으니 나이는 一百一歲이다. 韓愈가 보낸 僧侶가 곧 이 스님이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 4. 韓愈의 「送僧澄觀」에 대한 宋代 以後의 논쟁에 대하여

현재 보이는 불교관계의 제일 오래된 자료인 契嵩(1007~1072)의 『鐔津文集』 卷 16은 韓愈의 排佛行爲를 질책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 그가 詩를 지어서 「送僧澄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말의 뜻이 傲慢해서 마치 俗子小生을 꾸짖는 듯하다. 그러나 「澄觀」이란 것은 淸涼國師인 듯하다. 詩 가운데 「모두 말하길 澄觀이 비록 승려의 무리라고 하지만 공무를 처리하는 능력과 관리로서의 역할이 當今에 없다」고 말한 것과 「문노니 경영하는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나? 道人 澄觀의 이름이 자자하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淸涼國師 澄觀인 듯하다. 혹 어떤 사람은 별도로 한 사람의 澄觀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미 詩를 보내면서 이름을 불러 풍자를 할 수 있겠는가. 비록 淸涼國師가 아니더라도 이미 옳지 못하거나와 과연 淸涼國師라 하면 더욱 불가할 것이다. 唐의 代宗으로부터 「禮로써 맞이하여 道를 물었고 文宗에 이르기까지 七帝의 스승이 되어 그 道德은 높고 學識은 內外를 통달하였으며 百餘 歲를 長壽하셨다. 그가 성대하게 教化를 펼 적에 韓愈는 후배로서 조그마한 벼슬에 불과하였다. 어찌 감히 이러한 詩를 보낼 수 있겠는가? 다만 이것은 韓愈가 澄觀의 도덕과 인망이 높고 불교도의 최고위에 있었기 때문에 詩를 빌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 불법의 기세를 꺾고 학자가 불법으로 나아가려는 뜻을 막아보려는 것이 목적이요 실제로 澄觀에게 보낸 것은 아니다」<sup>17)</sup>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祖琇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그의 『隆興編年通論』 卷 19의 貞元 15年條에 淸涼 澄觀이 德宗의 帝誕節에 설법한 「華嚴宗旨」와 「淸涼國師號」를 받게 된 전말을 기록한 다음에 논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儒者인 韓退之에게 「澄觀을 보내는 詩」가 있는데 비록 才能을 아름답게 여기는 듯하지만 禮儀上 매우 오만하다. 무릇 우리 불교의 先達은 모두 澄觀이 七帝門師이기 때문에 退之가 君父의 스승을 능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대개 澄觀은 貞元 13年(797)에 임금의 부름을 받았고 同 15年(799)에 이르러 비로소 國師로 불려졌다. 退之는 宣武, 武寧의 二節度推官을 지내고 長安에 돌아와 四門 博士가 되고 監察御史로 轉任되었다가 罪를 지어 山陽승으로 좌천되어 낙양에서 근무하였다. 澄觀에게 준 詩는 洛陽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니, 이때에 澄觀은 아직 불림을 받기 이전이고 韓愈는 御使를 그 만두고 詩를 지어준 것이니 無禮하게 거만을 부리는 것은 士大夫가 僧侶를 대하는 상습적인 태도이다. 혹은 退之가 澄觀의 名聲을 질투하여 그 이름을 모독하기 위하여 그에게 詩

17) 大正藏 52 - 737 上

를 주어 싫어하였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當時에 별도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 그렇지 않다. 마땅히 出處의 顯晦로써 생각하여 본다면 輕重의 情況이 드러날 것이다. 무릇 澄觀이 국사가 된 이후로 수명이 102세에 이르기까지 當代의 어진 宰相인 齊杭(740~804), 高郢(740~811), 鄭餘慶(746~820), 武元衡(758~815), 裴度(765~839) 등이 모두 門弟子라고 자칭하고 經을 펴 놓고 大義를 물었는데 退之가 혼자 오만하게 시를 보낼 수 있겠는가?18)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조수가 위 詩의 성립을 징관의 국사 이전 한유가 어사를 그만둔 뒤의 낙양시절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19) 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鄭餘慶20)은 원화 13년(818) 詳定禮儀使가 되어 한유를 副使로 추천한 사람이고 또 裴度21)는 吳元濟의 토벌에 즈음하여 한유를 行軍司馬로 추천하였으며 「불골을 논하는 表」를 올려 憲宗이 진노하였을 때 그 죽음을 구하여 준 사람이다. 배도가 징관의 제자라는 이야기는 다른 전기에는 보이지 않음으로 그 交際의 정도를 알 수 없지만 만약 화엄종의 징관과 한유의 만남이 사실이라면 그 다리를 놓은 사람은 「華嚴經疏序」를 쓴 陸長源22)이었을 것이다. 汴州의 軍閥은 항상 傲慢하였기 때문에 조정은 너그럽고 부드러운 董晉을 節度使로 임명하였지만 不安을 이기지 못하여 貞元 12年(796)에 준엄한 군인으로 알려진 汝州節度使 陸長源(?~799)을 宣武軍行軍司馬로 임명하여 董晉을 보좌하게 하였다. 孟郊는 육장원의 힘으로 한유와 같은 軍幕에 근무하면서 함께 連句를 지어 즐겼다. 육장원도 「唐才子傳」 卷5 孟郊傳에 「그때에 육장원도 시를 지어 서로 왕래하였는데 작품이

18) 大日本續藏經 130 - 307 左下~308 右上

19) 澄觀이 淸涼國師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貞元 15年(799)이고 韓愈가 監察御史를 그만두고 山陽승으로 좌천되어 洛陽에 근무한 것은 元和 二年(807)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澄觀이 國師號를 받은 것이 훨씬 먼저이다. 韓愈는 董晉을 의지하여 宣武軍觀察推官으로 근무하다가 貞元 15年 동진이 죽고 軍亂이 일어나자 徐州로 피신하였다. 「送僧澄觀」을 지은 貞元 16年(800) 5월에는 徐州로부터 洛陽에 왔다가 겨울에는 長安으로 갔다가 이듬해에 다시 洛陽으로 왔다가 겨울에는 長安으로 되돌아가는 식으로 不遇하던 때이다.

20) 鄭餘慶(746~820)의 傳記는 「舊唐書」 권 158, 「新唐書」 권 165에 수록됨, 「隆興編年通論」 권 19에 의하면 澄觀은 이 사람을 위하여 「華嚴綱要」 3권을 지었다(大日本續藏經 130 - 306 左上)고 하며 「大元華嚴寺重修大唐華嚴新舊兩經疏主 麟經大教授充上都僧統淸涼國師妙覺塔記」에 의하면 이 사람이 澄觀의 文集 10권을 수집하였다고 한다.

21) 裴度(765~839)의 傳記는 「舊唐書」 권 170, 「新唐書」 권 173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른바 「元和之治」를 이룩한 어진 宰相이다.

22) 陸長源의 傳記는 「舊唐書」 145, 「新唐書」 151에 수록되어 있다. 「隆興編年通論」 권 19에 의하면 澄觀은 陸長源을 위하여 「三聖圓融觀」 1권을 지었다고 한다. 현재 日本의 金澤文庫에는 鎌倉時代의 필사본 「華嚴經疏」를 소장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첫머리에 陸長源의 「華嚴經疏序」가 수록되어 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高橋秀榮 「陸長源が撰述した『大方廣佛華嚴經疏序』について」(「金澤文庫研究」 第二十一卷 第十二號)라는 논문이 있다.

제법 많았으며 또한 훌륭한 작품이었다. 『咸池集』十卷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는 詩文에도 뛰어나 한유와 다소 말뼛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징관의 제자인 陸長源을 통하여 징관과 한유는 서로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詩 가운데

愈가 옛날 군대를 따라 대양에 있을 때  
집안에 가득한 현인 호걸들  
모두 말하길 징관이 비록 승려의 무리라고 하지만  
공무를 보는 재능과 관리로서의 역할은 당금에 없도다

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貞元 12年경에 한유가 선무군(幽州擔當)의 幕僚로서 근무하였을 때 징관에 대하여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23)</sup>

이상과 같이 화엄종의 징관과 한유의 시에 나오는 징관이 同一人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의 의문이 없지 아니하다.

첫째 화엄종의 징관의 전기를 기록한 『妙覺塔記』, 『宋高僧傳』 등은 會稽, 山陰, 潤州, 蘇州, 成都, 洛陽, 金陵, 剡溪, 東京, 太原, 五臺, 蛾眉, 中條山 棲巖寺, 崇福寺, 長安, 浦津 등多數의 땅 이름, 절 이름이 나오지만 泗州의 開元寺는 보이지 않는다. 또 李翱의 「泗州開元寺鍾銘」에는 「생각하건대 泗州開元寺가 물에 떠내려가고 불타버린 뒤에 승려인 징관이 그 무리 몇 사람과 함께 室居를 復舊하고 大鐘을 만들어 貞元 15年(799) 일을 마쳤음으로 이에 隴西李翱은 사실을 적어서 이것을 기념한다」<sup>24)</sup>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징관은 韓愈의 詩에 나오는 澄觀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方世學의 『韓昌黎詩集編年箋注』는 이 李翱의 「鍾銘」을 인용하여 「送僧澄觀」의 「불로 태우고 물로 굴러 땅을 쓸어 쓸쓸하다」라는 글귀를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韓愈, 李翱 등의 시문에 등장하는 징관은 貞元 15年 이전에는 開元寺의 僧侶였을 것이다. 그런데 華嚴宗의 징관은 貞元 12年으로부터 同 14年(798)까지 40卷 『華嚴經』의 譯經에 종사하는 한편 『貞元新譯華嚴經疏』의 저작에 몰두하였으며 同 15년에는 鎮國大師, 清涼國師라는 칭호를 받아 天下大僧錄이라는 직함을 얻게 된다.<sup>25)</sup> 또 『宋高僧傳』 卷5의 「澄觀傳」에 의하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澄觀이 交際

23) 宋나라 魏仲舉編 「五百家注昌黎文集」의 注에 「孫曰貞元十二年公佐宣武軍幕」이라고 注記하고 있는데 『新唐書』와 『舊唐書』의 「韓愈傳」과 일치한다.

24) 李翱의 「泗州開元寺鍾銘」은 『文苑英華』 권789, 『全唐文』 권637에 수록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李翱의 文集에는 「鍾銘」의 저작을 거절하는 「答泗州開元寺僧書」가 있다. 『唐文粹』 권638, 『文苑英華』 권688에 이것이 수록되어 있고 『全唐文』 권636의 수록본은 「答泗州開元寺僧澄觀書」라고 「澄觀」이란 글자를 추가하고 있다.

25) 貞元 12年으로부터 同 15년까지의 澄觀의 활동에 대해서는 『隆興編年通論』 권19를 비롯한 각종의 「澄觀傳」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한 사람으로는 齊杭, 韋渠牟, 武元衡, 鄭綯, 李吉甫, 李逢吉, 權德輿, 錢徽, 歸登, 韋丹, 嚴綬, 孟簡 등이 정관을 欽慕하고 戒訓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孟簡을 除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한유보다 十年이상의 年長者이고 高官大爵을 지낸 사람들이다. 더군다나 權德輿,<sup>26)</sup> 韋渠牟<sup>27)</sup> 등은 文章家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정관의 文集을 정리한 鄭餘慶도 이 무렵에 활동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宰相을 지내고 정치적,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文筆家인 벼를 두고 낙양에 있는 三十代의 微官末職인 韓愈를 방문하고 貞元 14년에 겨우 進士가 된 李翺에게 「鍾銘」을 부탁하러 다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泗州에서 활약한 별도의 澄觀이 한 사람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 『石刻史料叢書』甲編之十九의 「江蘇通志」에 唐나라 元和 6年 5月 15日에 沙門澄觀이 零陵寺에 石井欄과 石盆을 만들어 供養에 充當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注記에는 「살펴보건대 지금의 報恩寺는 곧 옛날의 零陵寺로서 韓退之의 「送澄觀詩」에서 「내가 거두어들여 갖과 망건을 더하여 주겠다고 한 것이 곧 이 僧侶이다. 정관이 棲霞寺律大師碑를 지은 것이 『寶刻類編』에 보이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곧 옛날의 零陵寺는 지금의 報恩寺로서 이 절에 石井欄과 石盆을 만든 정관은 棲霞寺律大德碑를 지은 사람과 同一人으로서 韓愈의 詩에 나오는 澄觀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지금 『寶刻類編』卷8을 보면

### 澄觀

#### 攝山棲霞寺律大德碑

26) 權德輿(759~818)는 天水略陽(陝西省 略陽縣)의 사람으로서 『舊唐書』卷148의 「權德輿傳」에서 「權德輿는 태어난 지 四歲에 詩를 지을 줄 알고 七歲에 父親의 喪을 당하여 孝行으로 알려졌고 15歲에 수백 편의 문장을 지어 『童蒙集』十卷을 편집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文章家로서 德宗 때에 太常博士, 右補闕, 起居舍人, 中書舍人, 戶部侍郎 등을 역임하고 憲宗 때는 吏部侍郎, 太子賓客, 太常卿, 禮部尚書, 平章事를 지낸 사람으로서 學者로서도 유명한 사람으로 『權文公文集』에는 「정관 전」에 나오는 韋韜, 高崇文의 碑銘도 있으며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道者와 함께 庚申을 지킴」이란 詩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庚申날 道士와 함께 道典을 읽으며 밤샘을 한 모양이다. 또 馬祖道一(709~788)의 碑銘 등 불교에 관한 작품도 많다. 『隆興編年通論』권 22는 權德輿의 「章敬寺栢巖禪師碑」를 수록하고 祖秀는 評하여 말하길 「相國權文公의 章敬寺碑는 辭理가 深妙하고 言旨가 통달하였다—唐, 宋을 통하여 大臣으로서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 간 사람은 唐의 權文公과 宋의 公鄭(전기 미상)밖에 없다고 칭찬하였다.

27) 韋渠牟(749~801)는 京兆萬年의 사람으로서 經史를 博覽하고 道士가 되었다가 뒤에 僧侶가 된 사람으로서 秘書郎, 四門博士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儒佛道 三教에 造詣가 깊은 사람으로서 德宗의 貞元 12年(796) 4月 德宗의 誕辰日에 麟德殿에서 三教談論이 있는 이후로 德宗의 신임을 얻어 陸贄가 宰相을 그만둔 이후로 皇帝가 親政을 행할 때 韋渠牟가 많은 사람을 추천하였다고 한다. 『舊唐書』권 135, 『新唐書』권 167에 그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를 列擧하고 그 注記에 「王如玘撰大曆四年三月建 乾符五年十一月重立」이라고 적혀 있다. 즉 大曆 4年(769)에 징관이 『섭산서하사울대덕비』를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文苑英華』 卷 864, 『全唐文』 卷 742에는 劉軻가 지은 『棲霞寺故大德玘律師碑』가 있는데 거기에는 曇玘律師(723~798)의 法嗣의 한 사람으로서 臨淮開元寺 澄觀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攝山棲霞寺律大德碑』를 짓고 零陵寺에 石井欄과 石盆을 만들고 韓愈, 李翱 등과 交際하며 開元寺에 居住한 詩僧澄觀이 한 사람 별도로 있었던 것 같다. 참고로 淸涼 澄觀은 大曆 3년으로부터 不空三藏의 譯場에서 潤文大德으로 일하였으며 元和 5년에는 僧統으로 되어 있다.<sup>28)</sup>

## 5. 淸涼澄觀의 生沒年代와 泗州澄觀

淸涼 澄觀의 生沒年代에 대해서는

- 1) 『華嚴經玄談會玄記』 卷 1,<sup>29)</sup> 『華嚴演義鈔會解記』 卷 1<sup>30)</sup>에서 인용한 『妙覺塔記』는 開元 26年 戊寅(738)生 開成 己未(839)卒 俗壽 102.
- 2) 『法界宗五祖略記』,<sup>31)</sup> 『隆興編年通論』 卷 25,<sup>32)</sup> 『淸涼山地』 卷 3은 開元 戊寅生, 開成 3年(838)沒 壽 102를 기록하였으며 『佛法金湯編』 卷 7,<sup>33)</sup> 『佛祖歷代通載』 卷 第 14,<sup>34)</sup> 『佛祖統紀』 卷 29,<sup>35)</sup> 『全唐文』 卷 919도 同一한 見解이다.
- 3) 『釋門正統』은 開成 2年(837)卒 壽 102.<sup>36)</sup>
- 4) 『佛祖綱目』 32는 開成 3年卒 壽 127.<sup>37)</sup>

28) 淸涼 澄觀의 僧統에 대해서는 中富敏治 「唐代之僧統」(『大谷學報』 40-3, 1960年과 拙論 「僧統澄觀とその生沒年代について」(『印佛研究』 38-1, 1989年 12月) 등의 논문이 있다.

29) 『新纂大日本續藏經』 제 8권 - 93上~94上.

30) 『華嚴經大疏玄文隨疏演義鈔會解記』 10권은 宋의 觀復이 지은 것으로 淸涼 澄觀의 『華嚴經疏鈔』를 해석한 名著이지만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日本의 金澤文庫에서 鎌倉時代의 華嚴學者인 湛睿의 필사본이 발견되어 納富常天의 校訂을 거쳐서 1968年 『金澤文庫研究紀要』 第五號에 수록되었다.

31) 『大日本續藏經』 134卷, 275右下~276左上.

32) 『大日本續藏經』 130卷 - 670下.

33) 『大日本續藏經』 148卷 - 447左下.

34) 『大正藏』 49 - 601上, 634下.

35) 『大正藏』 49 - 293中.

36) 『大日本續藏經』 130권 - 456右下~左上.

라고 기록하여 異說이 많음을 알 수 있다. 上記의 傳記들은 大同小異한 것으로서 백년 이상을 살았다는 것은 모두 일치한다.

그러나 『宋高僧傳』 卷5,<sup>38)</sup> 『六學僧傳』 卷6,<sup>39)</sup> 『神僧傳』 卷8<sup>40)</sup>은 모두 「元和中(805~820)卒 壽 70餘」라고 기록하여 『妙覺塔記』 등과는 전혀 다르다. 어쩌면 『宋高僧傳』 등에서 말하는 澄觀의 入寂年代는 泗州 澄觀의 入寂年代를 잘못 기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sup>41)</sup>

泗州 澄觀의 생몰년대는 알 수 없지만 元和 元年(806) 이전에 開元寺의 上座의 자리로부터 물러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즉 白樂天이 지은 「大唐泗州開元寺臨壇律德徐沙濠三州僧正明遠大師塔碑銘并序」에 明遠(765~834)이 元和 元年(806)에 大衆의 요청에 의하여 開元寺의 上座가 되고 다음해에는 泗州의 僧正에 취임하여 開元寺의 북쪽 200보쯤에 講堂七間, 僧院六所를 지었다<sup>42)</sup>는 것이다. 이렇게 泗州 澄觀이 元和 元年 이전에 開元寺의 上座의 자리에서 물러난 듯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는 元和 六年(811)에 零陵寺에 石井欄과 石盆을 만들고 있음으로 그의 입적은 元和 六年(811) 이후로부터 元和의 마지막 해인 15년(820)까지를 추정할 수 있다. 가령 泗州 澄觀이 元和의 마지막 해인 元和 15년(820)에 入寂하고 『華嚴經演義鈔會解記』 卷1이 인용한 『宋高僧傳』의 74歲의 入寂<sup>43)</sup>을 가정한다면 그의 生沒年代는 西曆 747~820년쯤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엄종의 澄觀보다 9년 정도의 후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攝山棲霞寺律大德碑」를 지었다는 大曆 4年(769)에는 23歲에 해당한다. 23세의 청년 승려로서 碑文을 짓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인 것 같다. 오히려 攝山 棲霞寺에 碑文을 지은 것은 泗州 澄觀이 아니고 淸涼澄觀이었을지도 모른다. 즉 『宋高僧傳』의 장관전에 「乾元中(758~759)에 潤州棲霞寺醴律師를 의지하여 相部律을 배웠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에 淸涼 澄觀은 20代의 청년이지만 泗州의 澄觀은 아직 11歲 정도에 불과하므로 律藏을 수학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泗州 澄觀이 零陵寺에 石井欄과 石盆을 만든 다음해인 元和 7年(812)에 74세로 입적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그 생몰년대는 739년 生 812년 沒이 됨으로 淸涼 澄觀과 1年밖에 차이가 없다. 또 「妙覺塔記」에는 澄觀이 棲霞寺의 醴律師에게 수학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오히려 棲霞寺에서 相部律을 배운 사람은 泗州 澄觀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7) 『大日本續藏經』 146 - 546쪽下.

38) 『大正藏』 50 - 737下.

39) 『大日本續藏經』 133 - 261左下.

40) 『大正藏』 50 - 1004下.

41) 鎌田茂雄 위의 논문 93쪽.

42) 『全唐文』 卷678, 『白氏文集』 卷60.

43) 현존하는 『宋高僧傳』의 모든 판본은 동일하게 「壽七十餘歲」를 기록하고 있다.



## 6. 맺는 말

이상 살펴 본 바에 의하면 泗州의 澄觀은 『華嚴經疏鈔』를 저술한 澄觀과는 별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관계의 자료에서 同一人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泗州 澄觀이 가진 官吏로서 公務를 취급하는 才能과 詩人으로서의 資質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 가지 풀리지 아니 하는 의심은 『全唐文』과 『全唐詩』를 보면 수많은 僧侶詩인이 등장하는데 하필이면 澄觀만이 中唐을 대표하는 儒學者인 韓愈의 詩와 李翱의 문장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또 一切 敬語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즉 契崇의 말대로 화엄 정관의 이름을 시기하여 詩를 지어 풍자하여 澄觀의 이미지를 俗物로 만들었을 뿐이고 실제로 泗州지방에서 활약한 澄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泗州는 淸涼 澄觀의 고향인 越州와 가까운 곳이므로 長安에서 활약하는 여가에 지방의 緣故地에 하나의 절을 맡고 간혹 여가를 즐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泗州 澄觀과 淸涼 澄觀의 관계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많지만 四澄觀說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同名異人의 澄觀이 存在하였던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즉 日本人인 元開(722~785)가 지은 『唐大和尚東傳傳』에 「日本の 天平 五年 癸酉歲에 沙門榮觀과 普照 등이 遣唐大使丹墀, 真人廣成 등을 따라서 留學하나 이 해는 唐 開元 21年이다. 唐나라 모든 절의 三藏大德 스님들은 모두 戒律으로써 道에 들어가는 正門으로 삼고 만약 계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려의 가운데 넣어주지도 않았다. …中略… 이미 10年을 지나서 비록 遣唐使를 기다릴 수 없게 되었으나 일찍 돌아오고 싶어 이에 西安國寺의 스님인 道航, 澄觀과 東都의 스님인 德淸, 高麗스님 如海를 초청하였다」<sup>44)</sup>이라고 澄觀의 이름이 보인다. 天平 5年(733)에 유학하여 10年째라면 西曆 742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淸涼 澄觀은 겨우 5歲에 불과하다. 아마 淸涼 澄觀보다 훨씬 선배인 同名異人의 澄觀이 實存하였을 것이다. 『釋氏稽古略』 권 3에 「淸涼國사장관이 처음 천만세 통천원년에 태어나시다(淸涼國師澄觀始見於則天萬歲通天元年)」<sup>45)</sup>이라는 기록이 있다. 淸涼 澄觀이 則天의 萬歲通天 元年(696)에 태어났다는 기록은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萬歲通天 元年(696)에 태어났다면 西曆 742년에는 47歲에 해당하므로 榮觀, 普照 등이 日本으로 초청하려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 西曆 11세기로부터 12세기에 걸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四澄觀說, 그 중

44) 『大正藏』 51 - 988上~中.

45) 『大正藏』 49 - 833中.

에서도 韓愈의 「送僧澄觀」에 나오는 澄觀에 대한 여러 문제를 고찰하여 보았지만 이 무렵에는 淸涼 澄觀의 傳記에 미묘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즉 宋의 太平興國 7年(982)으로부터 端拱 元年(988)에 걸쳐서 성립한 『宋高僧傳』 권 5의 「澄觀傳」은 「元和中(806~820)에 示寂 壽命은 70餘」라고 하였지만 契崇(1007~1072)의 『鐔津文集』 권 10은 壽 100여 세와 國師를 기록하고 觀復(生沒年代는 확실치 아니함)의 『華嚴經演義鈔會解記』(1146년경에 성립)는 裴休(787~860?)가 지었다는 『妙覺塔記』를 인용하여 102세, 국사에 더하여 僧統을 기록하고 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 1) 10세기의 전기, 70餘 歲
- 2) 11세기의 전기, 100餘 歲, 國師
- 3) 12세기의 전기, 102歲, 僧統國師

라고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성립된 佛敎史書에는 저 유명한 排佛論者인 韓愈도 불교에 귀의하여 太顛禪師의 法嗣의 한 사람이 되었다<sup>46)</sup>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쩌면 四澄觀說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問題는 儒敎와 佛敎의 交涉史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6) 本論 註1) 참조.